다산포럼

송 재 소

기계문명의 득과 실

현대는 기계문명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기계도 끊임 없이 진화하여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와 컴퓨터와 휴대폰인데 이것들은 이미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기계 없이 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속박하기도 한다. 과연 기계란 무엇일까?

'機械(기계)'라는 낱말이 온전하게 등장하는 최초의 문헌은 '장자(莊子)' '천지(天地)' 편일 것이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子貢)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밭에 물을 주고 있는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우물의 수면까지 내려가는 길을 파고 항아리에 물을 담아 와서 밭에 뿌리고 있었는데, 노력에 비해서 대단히 비효율적이었다. 그래서 자공이 두레박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시험해 보라고 권유했다. 그랬더니 노인은 "내가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들으니, 기계를 가진 자는 반드시 기계를 쓸 일이 있게 되고 기계를 쓸 일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계에 사로잡혀 무엇을 꾀하는 마음이 생긴다"(有機械者 必有機事 有機事者 必有機心)라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기계에 사로잡혀 무엇을 꾀하려는 마음'(機心)이 생기면 인간의 순수한 본성이 안정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두레박의 사용을 거절했다. 여기서 두레박이 일종의 기계인 셈이다.

장자 사상 전반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이 이야기의 완전한 뜻을 읽을 수 있겠지만, '기계를 가진 자는 반드시 기계를 쓸 일이 있게 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자동차를 가지면 반드시 자동차를 쓸 일이 있고,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가진 자도 반드시 그것을 쓸 일이 있게 된다. 그리고 기계를 쓰다보면 어느 듯 그 기계에 사로잡히게 된다. 현대인이 자동차와 컴퓨터와 휴대폰에 사로잡혀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 엄연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기계에 사로잡힌 마음을 '기심(機心)'이라 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人心)이 아닌 '기계의 마음'을 뜻한다. 이 말이 후대에는 '교묘하게 남을 속이려는 마음' 또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의 뜻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機'자에는 '거짓', '나쁜 책략'의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기심'은 좋지 않은 마음을 가리키는데 그 어원은 '기계'에서 나왔다.

오늘날 가장 가공할 기계는 군사용 무기이다. 그 중에서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 때문에 지금 세계가 시끄럽다.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군사용 무기는 원래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고안된 기계이다. 이 기계를 가진 자는 이 기계를 쓸 일이 있게 되고 이 기계를 쓸 일이 있게 되면 이른바 '기심'이 생기게 마련이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바로 '기심'이다. 이건 '인심'이 아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사고 패턴을 바꾸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한 조직적 범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가? 자동차가 내뿜는 공해물질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 소름 끼치는 최첨단 무기의 개발로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를 위험에 처해 있다. 이 모든 것이 기계로 말미암은 재앙이 아니겠는가?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려는 기술의 속성상 오늘의 기계문명을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쯤해서 우리는, 두레박의 사용을 거절한 노인의 마음을 한 번쯤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성균관대 교수〉
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정부, 한미 FTA 협상 서둘러선 안된다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정·청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하는 총력체제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따라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지만 위원회 신설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임기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협상과정을 점검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등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

문제는 정부가 왜 대통령 직속에다 위원장이 '부총리급'인 '슈퍼 위원회'까지 설치하며 FTA 협상을 서두르고 있느냐는 점이다. 한미 FTA는 청와대의 표현대로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되고, 전 국민적 관심사인 중요사안이다.

더구나 협상의 상대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최강의 경제대국인 미국이다. 미국은 두 차례의 협상에서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 개방, 규제철폐, 투자 장벽 제거, 규제 신설에 따른 사전 협의 의무화 등 우리 경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농업 보조금 폐지'에서 드러나듯 우리 정부의 소극적·저자세의 협상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대국인 미국과 동등한 협상을 해낼 수 있을 지 수긍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한미 FTA 협상 반대운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노동자, 농민, 영화인, 대학 교수 등이 협상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도 일정에 쫓긴 협상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세를 얻고 있다.

정부는 협상을 서둘러선 안된다. 노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를 지냈던 인사까지 "한미 FTA 추진이 노 대통령의 조급증에서 시작된 한건주의"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한미 FTA가 왜 필요한 것인지 국민을 설득하며 공감대부터 형성해 나가는데 진력하길 바란다.

한나라, '호남비하' 시장 징계 실망스럽다

"전라도 놈들은 이래서 욕을 먹는다" 한나라당 소속 이효선 광명시장이 지난 12일 시의원과 지역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35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어떻게 시정잡배도 입에 담기 어려운 망언을, 그것도 공식석상에 내뱉을 수 있는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이 시장의 자질문제는 그만두고라도 온전한 정신인지 의심스럽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일은 한나라당의 이 시장에 대한 징계수위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24일 이 시장에 대해 1년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드세지는 비난여론부터 피하고 보자는 면피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조차 윤리위의 제재 수준이 낮다며 자체적으로 탈당을 권유키로 한 것만 봐도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알 수 있다.

이 시장의 '호남비하' 발언은 수해 중 골프를 친 한나라 경기도당 간부의 빗나간 행동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호남인 전체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시장의 망언에 대한 징계를 보면서 한나라당이 과연 지역차별이나 지역감정에 대한 확고한 근절의지가 있는지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이 시장의 발언이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할 수 없는 한나라당 정체성의 위기로까지 보여 진다.

한나라당은 5·31 지방선거 이후 '호남 껴안기'의 서진(西進)정책에 공을 들여 왔다. 비록 서진정책이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전략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호남인들은 한나라당의 변화에 상당한 기대를 했다. 그러나 이번 이 시장의 발언과 솜방망이 징계를 보면서 서진정책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려면 이 시장에 대해 제명 등 국민이 납득할만한 준엄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NGO 칼럼

류 동 훈

물난리, 감동적 시민참여로 극복하자

전국을 강타한 물난리로 한반도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광주는 큰 폭우가 오지 않아 다행이다. 하지만 진짜 큰 비는 장마가 끝난 이후 8~9월에 오기 때문에 더욱 긴장해야 한다.

2004년 태풍 메기를 비롯한 물난리로 남구 백운로타리와 무등시장주변, 서구 서석고주변과 유덕동 칠성마을, 동구 소태동 일대 등은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당해왔다. 그동안 하수구청소, 하수관거공사, 배수펌프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예산부족으로 마무리 짓지 못한 곳이 많다. 남구 무등시장 주변 하수관거 확장 공사는 침수지역 240m는 했지만, 1천460m는 아직 못하고 있고, 동구 소태천 일대의 하수구공사도 못하고 있으며, 서구 칠성마을공사도 8월에 끝난다.

물난리는 윗 지역의 쓰레기가 아랫지역의 하수구를 막아 발생하고, 아랫지역에서 막힌 하수구로 윗 지역에서도 물난리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물난리에 대한 대책은 각 구별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광주 도시전체를 바라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침수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자 하여도 물난리가 나버린 이후에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하려면 또 내년 물난리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물난리가 일어나기 이전에 종합분석을 할 수 있는 연구팀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빨리 구성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상습침수지역 주민들은 빗소리만 들으면 생명의 위험을 느껴 제대로 잠을 자지못한다. 그런데 도심침수의 가장 큰 원인은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하수구를 막아버리는 것과 배수구 덮개를 냄새가 올라온다고 장판이나 판자로 덮어버려서 물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지대에서 물이 배수구로 빠지지 않고, 지면을 타고 급물살로 저지대를 때려버린다. 70% 가량의 배수구가 막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비가 오면 장판을 걷어내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하수구를 막을 쓰레기도 보이는 데로 정리해 주어야 한다. 주민들을 '물난리 수호천사'로 위촉하여 물난리 제보와 예방조치에 동참할수 있도록 미리 조직하면 좋겠다. 교회에서는 예배시간에 폭우가 오는 날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배수구 위 장판과 쓰레기를 치워줄 것을 안내해 주자. 조기축구회나 아파트 안내 방송 등 주민조직도 동참하자. 이를 위한 주민네트워크를 시청과 구청은 신속히 구성해야한다.

홍수가 올때 방송사들은 저지대 주민들이 할일만 긴급 방송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기상청 홈페이지 홍수주민대응요령에 저지대 주민들이 할일만 있기 때문이다. 고지대 주민들이 저지대 주민의 침수를 막기 위해 맨홀의 장판을 걷고 쓰레기를 치워주는 등의 대비요령도 함께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안내하여 긴급하게 방송으로 호소해야 한다.

물난리는 저지대 주민만의 일이 아니라 도시민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극복할 수 있다. 5·18때 광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섰던 시민의식을 부활시켜 쓰레기를 치우고 배수구 장판을 걷어내는 감동적인 시민참여로 반드시 물난리를 막아내자.

〈광주·전남개혁연대 사무처장〉

찰칵! 동물세상

눈이 백미인 미니호스

이렇게 작은 백마도 있을까.

얼굴만 클로즈업 시키면 백마다. 구경꾼들에게는 낯설고 신비하게 보일 정도다.

이 말은 '미니 호스(소형말)'라는 말이다. 얼굴은 큰 말과 비슷한 반면 몸은 5분의 1 수준으로 당나귀만하다.

서양에서는 주로 작은 짐수레나 어린이들의 승마 훈련용으로 이용된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신흥부자들은 아이들의 놀이감으로 목마 대신 이 말을 사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의 아이들에게 놀이감으로 생명을 맡긴다는 건 그렇다.

특히 이 말은 워낙 순하고 사람을 잘 따라 특별히 훈련시키지 않아도 일반인들이 들어가 만질 수 있고 스스로 다가오기도 하다.

그런데 한 쌍의 미니 호스 중 수컷이 지난해 심장마비로 죽었다. 습성을 이해하는 친구들도 사육사와 수의사인 내가 고작인 외톨이가 된 셈이다.

수컷을 잃은 후로 암컷이 한 쪽 눈에 염증이 생기곤 했다. 많이 울어서일까.

서로 비비기를 좋아하는 말들에게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은 참기 힘든 걸까 라는 생각도 해봤다.

◇ 최 종 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광주일보를 읽고

교육위원선거 투명한 선거돼야

광주일보 7월 21일자 1면 '교육위원 선거 최악의 부패'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이 글을 쓴다.

오는 7월 31일에 실시되는 전라남도 교육위원선거는 전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교육자치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려 우리나라 지방교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로서 그 중요성이 적지 않다 하겠다.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선거권을 갖게 된다.

교육위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의회라 할 수 있다. 교육위원 선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지방교육 특성화 등을 살리려는 것이 근본 취지다.

따라서 교육위원에게는 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예산안·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심의할 권한이 주어진다. 이런 막중한 자리에 모범은 커녕 타락선거에서 뽑히는 인물이 앉는 것부터 결격 사유다.

후보자등록 하루 전날인 지난 7월 20일 학교운영위원에게 양주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와 양주를 전달한 교육행정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품을 살포해 선출된 교육위원이 본전을 뽑으려 할 것은 뻔하다. 이런 행태를 그냥 두고서 교육 정상화를 외쳐봤자 헛일이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현행 선거제도가 불법 선거운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선거에 규정된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소견발표회·언론기관등 초청 대담토론회가 전부다. 다른 공직선거에서 허용되는 명함 배부, 전화를 통한 공약 설명, e-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도 10일로 지나치게 짧아 후보자 자질 검증은커녕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기초정보를 얻는 것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후보자와 유권자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적게 하는 현행 선거운동방법은 과거 성행했던 금권·불법 선거에의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금권선거는 조직사회의 대표자를 구성원들이 스스로 선출하는 선거의 본래 기능을 퇴색시켜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게다가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각종 이권과 청탁에 개입하게 되어 결국은 권력형 비리를 낳게 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교육계는 물론 학생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한요택·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약포장 뒷면, 식별 용이하게 용도표기 제도화했으면

약국에서 사는 캡슐이나 알약은 최소 10개 단위로 포장돼 있어 싫든 좋든 한꺼번에 구입해 복용하게 된다.

그러나 구입한 당시에는 용도를 알고 있지만 복용 후 남아서 서랍에 넣어둔 약은 나중에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용도를 알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돼 결국 다시 구입해야 한다. 무슨 약인지 살펴보려고 해도 약 포장 뒷면에 용도표시가 없거나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써져 있다. 글씨 자체를 알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대부분의 약들은 사용법이나 부작용 등을 대부분 종이에 별도 표기해 넣어주는데 사용법이 적힌 종이는 약을 구입한 순간 대부분 버려지는 일이 많아 시간이 지난 의약품은 사실상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게 옳다.

정부에서는 낱개 포장 의약품 뒷면에 반드시 식별이 용이한 재질로 용도표기를 하도록 제도화하기 바란다.

제약회사들이 그같은 노력에 소홀한걸 보면 약을 더 많이 팔아먹을려는 상술도 포함돼 있는걸로 보인다.

▲이성해·광주시 서구 벽진동

無等鼓

화백(畵伯)과 우즈

주말골퍼중에는 속칭 '화백(畵伯)'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다.

화가(畵家)라는 소리인데 자칭 힘있는 장타자라고 뻐기는 부류들중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드라이버 샷마다 좌(훅)로 감기고 심하게 우(슬라이스)로 뻗고, 그러다가 가끔은 포물선을 그리며 페어웨이 한가운데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샷의 궤적들이 대원군의 작품을 무색케하는 한 폭의 동양란이다.

세계적 골퍼 가운데 필드의 풍운아 존 댈리가 동양화가적 기질을 갖고 있다.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장타자지만 드라이버샷은 늘 좌우로 빗나간다. 그런 댈리가 화백신세를 면해보려고 고안해 썼던 무기가 0번 아이언이다.

댈리는 지난 93년 US오픈 당시 630야드인 발투스롤GC 17번홀에서 드라이버로 325야드를 보낸 후 0번 아이언으로 무려 305야드를 날려 전무후무한 2온에 성공했다. 0번 아이언은 로프트 13도(3번우드 15도)로 클럽 페이스가 거의 세워진 형태다.

그러나 지난 22일 열린 브리티시 오픈 2라운드에서 다시 예의 화백본성이 드러나고 말았다. 18번홀에서 휘두른 댈리의 드라이버 티샷이 오른쪽으로 휘면서 OB(Out of Bound)가 됐다. 두 번째 드라이버 샷이 페어웨이에 안착했지만 열을 받은 댈리는 또다시 드라이버를 꺼내들었다. 파5홀에서 2온(OB벌타 포함 4온)으로 까먹은 타수를 만회하려 했으나 욕심일 뿐 역시 오른쪽으로 휘었다. 6온에 2퍼트, 트리플보기로 마감을 하면서 짐을 싸야 했다.

이와달리 이번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한 타이거 우즈는 경기운영에서도 '황제'라는 찬사를 받았다. 4라운드 72홀중 드라이버는 1라운드 16번홀(파5)에서 단 한차례만 사용했다. 거리를 탐내기보다는 정확성을 위해 거의 모든 파4홀에서 2번 아이언으로 티샷을 했다. 매홀 거리에서 경쟁자보다 50야드이상 뒤졌지만 우승컵 클라레 저그는 욕심을 버린 그의 품에 안기었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ihh@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